“사람속 부처 밖으로 나와야 세상 밝아져”



번뇌를 끊는 이야기
–간화선看話禪의 길

석현웅 지음
운주사 펴냄
25,0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책은 〈묻지 않는 질문〉 이후, 12년 만에 책으로 만나는 서울 육조사 현웅 스님<오른쪽 사진>의 사자후를 모아 놓은 것이다. 이번 저술에는 그동안 스님이 대중과 소통하며 대중을 이끈 공부길과, 출가 후 50여 년 동안 수행하며 깨달은 견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간결하면서도 힘 있는 문장은 마치 옛 선사들을 지금 옆에서 친견하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이 들게 한다.

수행의 목적이 무엇이고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깨달음이 무엇이고 왜 간화선을 닦아야 하는지 등을 명료히 밝혀 놓고 있다.

현웅 스님은 유럽과 미국서 20여 년 동안 서양인들에게 선을 가르치다 귀국해 2005년 서울에 들어와 성북구 돈암동에 육조사 도량을 열고 간화선을 지도한다. 그가 수행하는 육조사는 흔히 말하는 재를 지내거나 기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일절 금한다. 육조사에 들어서면 “사람은 스스로 귀한 존재”라고 간판에 새겨진 표어가 먼저 그것을 말해 준다. 사람 속에 있는 부처가 살아나 그 부처가 밖으로 나와야 불교가 밝아지고 세상도 밝아진다는 것이다. 그는 먼저 자기인 사람, 이 사람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간화선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사람 떠나 부처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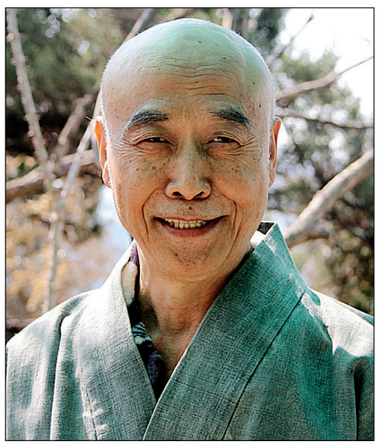
저자는 한국불교의 중심에 간화선이 있지만, 정작 바른 스승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 저기서 보고 읽고 배워 얻은 지식으로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배기 자신의 견처, 자신의 마음, 자신의 소식을 들려줄 선지식은 찾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출가 후 오로지 참선 공부에만 전념한 현웅 스님은 이 책에서 당신의 공부 소식을 온전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행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바른 공부길로 이끄는데, 경전이나 선사들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공자나 예수의 가르침까지 종횡으로 넘나들며 방편을 펼친다.

정법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스님의 사자후를 읽다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저자의 방황 시절도 말하지만, 마침내 스승을 만나고 그의 방황을 그친 이야기도 함께 실어 눈에 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한 사람만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이 삶 속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방황을 못 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너도 나도 공감하기에 충분한 요소들이 많다. 저자는 종교를 보는 눈이 남다르다. 모든 종교 속에 있는 진리는 하나로 뚫어져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사람이 가려 놓고 여럿으로 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현웅 스님, 그는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부처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다만, 믿는 사람은 더 가깝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처가 멀 뿐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미 부처를 보듬고 살고 있는 존재이다. 다만 배운 불교가 나 안에 있는 부처를 한번 더 덮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옛 사람의 말을 가져와 증명 하듯황벽 선사의 말을 빌린다. “불교를 배우지 말라”고. 다만 자기를 믿는 길을 배우는 것이다. 그가 이 책에서 보여주는 주요 메시지이다. 길에 든 사람은 능력이 살아난다. 그게 살아나야 내가 살기가 좋다는 것이다. 또한 불교는 사람을 살려내는 종교라는 것이다. “불교는 부처님을 위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그의 가르침은 책을 읽는 내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준다.



저자, 미국 등서 20년간 서양인에게 선 알려
2005년 귀국후 육조사 도량 열고 간화선 지도
저자의 수행 경험 및 방법 등 명료히 밝혀

서산대사도 “공부하려고 하면 그르친다”라고 하였다. 이 말의 의미만 제대로 알면, 이미 이 책 내용을 다 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불교는 알기 전에 믿음을 내야 한다. 내가 부처이고, 내 마음이 부처(佛)라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알고 들어가면, 분별과 시비가 일어나고, 망념과 망식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시끄럽다. 아는 것, 익힌 것이 마음을 덮어버리고 장애하여,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발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불교는 마음을 보고 믿는 공부다. 자기와 스승, 부처를 믿는 공부다. 모두 하나로 통해 있음을 믿고 깨닫는 공부다. 그래서 우선 마음을 알아야 한다. 마음은 형상이 없어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그래서 묘하며, 이 묘한 마음을 궁구하는 것이 참선”이라며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이 간화(看話)이다. 금강경의 상이 상 아닌 줄 알면 여래를 본다가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한다.

▲석현웅 스님은

20세에 전남 순천 송광사 구산(九山) 스님 문하로 출가한다. 수행의 기초를 은사이신 구산선사로부터 익힌다. 그리고 여러 해를 제방 선원서 정진한다. 인천 용화사 전강 선사 문하에서 공부길을 간택받고 대중 선방 생활을 뒤로한다. 그리고 깊은 산중 토굴에 들어가 6년간을 홀로 지낸다.

1984년 스위스 제네바 불승사로부터 초청 받아 서양인에게 한국 선불교를 지도하기 시작한다. 86년에는 북미로 건너가 시애틀에 돈오선원과 버클리에 육조사를 창건하고 선원문을 연다. 2005년 한국에 들어와 서울에 육조사 선원을 열고, 간화선에는 빠져 있는 도(道)의 그릇을 가꾸는 양생법을 더해 선(禪)을 지도한다.

저서로는 〈묻지 않는 질문〉과 이번에 출간한 〈번뇌(煩惱)를 끊는 이야기〉가 있다.

젊은이에게 띄우는 〈마음충전〉 메시지



마음충전

마가스님 지음/숨 펴냄/6900원

오늘 상처입은 젊은 영혼들에게 띄우는 〈마음충전〉의 메시지. 평소 약하고 상처입은 영혼들을 보살피기 위해 관심을 쏟는 저자의 마음충전 프로젝트는 단 하나뿐인 자신을 소중히 하고 사랑하는 방법, 자신을 아껴주는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베푸는 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이 프로젝트의 의의를 이 책 〈마음충전〉에 함께 담았다.

학생, 직장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바로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사랑받길 원하고 행복해지길 바란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안이 아닌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 이 책을 통해 저자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사랑받고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먼저 자신을 사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강아지도 주인이 미워하면 나가서도 미움을 받고, 주인이 사랑해주면 나가서도 사랑받는다고 한다. 오늘 하루 너무 지치고 힘들다면 스스로에게 셀프로 토닥토닥 해주면 어떨까?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그리고, 나는 이대로 내가 참 좋아,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라고 말해보자.

요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아마, 이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자신이 떠나면 슬퍼할 그들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 오늘 하루 한번 더 힘을 낸다면, 이 하루도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곁으로 돌아간다면 그 하루는 소소하지만 마음 따뜻한 쌀밥 같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루, 이틀, 한달, 일년, 언젠가 뒤돌아볼 때, 그런 쌀밥같은 기억들이 모여 행복한 미소가 지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랑’이다. “현실서 너무 멀어지지 마세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릴 테니”

한편 이 책에 나온 주옥같은 감로법문들은 마가 스님의 〈아침명상〉 카톡메시지 내용중에서 발췌한 것들을 간추린 것이다. 이 카톡 메시지는 현재까지 6년동안 진행중이다.

김주일 기자

법상 스님의 마음공부 이야기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법상 지음/민족사 펴냄/1만 6천원

글과 법문, 교육, SNS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쉽게 마음공부와 선(禪)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는 법상 스님(軍僧, 카페 목탁소리 지도법사, 용산 호국원광사 주지법사)의 새 책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민족사 펴냄)가 출간되었다.

〈육조단경〉은 중국 선종(禪宗)의 제6조이며, 조사선(祖師禪)을 실질적으로 창시하여 동아시아에 선의 황금기를 열어준 6조 혜능 스님의 자전적 일대기와 법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간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행자들의 지침서로 손꼽히는 〈육조단경〉은 엄밀히 말하면 조사어록이라 할 수 있는데, 조사어록 중 유일하게 ‘경(經)’이라고 불릴 정도로 존숭 받는 선불교 최고의 고전(古典)이다.

〈육조단경〉은 5종(덕이본, 돈황본, 종보본, 흥성사본, 대승사본)의 이본(異本)이 있다. 이 책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는 6조 혜능 스님의 생애와 주요법문 등 내용이 풍부하고 문장에 오류가 없어 선불교를 공부하는 데 좋은 판본인 덕이본을 쉽게 번역한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제목을 따로 붙이고, 소제목을 기본 단위로 해설을 자세하게 붙여 놓았다.

기존에 출간된 〈육조단경〉 번역 · 해설서들이 대부분 어려운 한문과 불교용어에 갇혀 있어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불자들조차 읽어내기 힘겹다고 토로하는 이들이 많다.

그에 비해 이 책은 법상 스님 특유의 쉽고 편안하면서도 선기(禪機) 넘치는 필체로 공들여 번역하고 해설한 점이 매우 돋보인다. 한글세대들도 한 줄 한 줄 술술 읽으면서 깊이 공감하게 되고, 우리들의 삶 자체가 마음공부임을 깨우쳐 주고 있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 법상 스님은 지난한 수행과 공부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은 요원하기만 하다면,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바로 그 답을 〈육조단경〉을 찾아보라고 조언한다.

수많은 참고서에서 헤매느라 참뜻을 모른다면 본래의 교과서로 돌아가야 하듯, 선(禪)의 교과서와도 같은 〈육조단경〉이라는 근원의 텍스트를 잘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고 역설한다. 스님 역시 〈육조단경〉을 새롭게 만남으로써 빼곡한 서재의 책을 군법당에 기증하게 됐다고 고백한다.

김주일 기자

